



탄신425주년기념

# 의암주논개제전

Euiam Ju Nongae Festival

1999.10.7(목)-10.13(수)

의암사 . 군내일원  
삼성문화회관

주최: 의암주논개제전위원회, 장수군  
 주관: 장수문화원  
 후원: KBS, 전북일보사, 경북도립국악원, 전북도립국악원  
 미래농촌장수군여성회, 팔공청년회, 장수군연예협회  
 교보생명, (주)동남레미콘, 내일기획, 은강기획

주요행사: 10월7일-10월11일  
 잡지발달사 기획전시  
 10월10일  
 동력 패러글라이딩대회, 청소년댄싱경연대회  
 10월11일  
 논개선발, 경북도립국악원 「동서화합의 메아리」공연,  
 충절무 공연  
 10월12일-10월13일  
 전북도립국악원 음악극 「그리운 논개」공연

## 의암주논개약사



- 1574년 9월 3일(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출생.
- 부친은 주달문이고 모친은 밀양박씨로 학덕이 높은 집안임.
- 어릴때 부친 별세. 편모슬하에서 자람.
- 숙부 주달무가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팔려고 하자 모녀는 모친의 친정인 경상남도 안의현으로 피신.
- 김풍헌의 고소로 장수현 포리에 피체(被逮)취조 결과 무죄방면. 무의무탁한 논개모녀를 최경희, 현감이 부인의 시중을 들게함.
- 부인이 사망하자 1591년(선조 24년) 최현감의 후실로 들어감.
- 1592년(선조25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
- 최현감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제수 받자 주논개님 진주성으로 따라감.
-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최경희 장군 남강에 투신 순국.
- 동년 7월 7일 축석루에서 왜군 승전연에 기생으로 가장 연회에 참석하여,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유인 남강에 투신 순절.

## 郡政方針

### 活氣차고 內實있는 長水建設

1. 自治行政의 生産性 向上
1. 山地를 活用한 特化産業 育成
1. 所得増大를 위한 地域開發
1. 忠節의 高장다운 觀光振興

## 郡民憲章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三節의 빛난 얼을 繼承하고  
밝고 맑은 心性으로 山紫水明한 내 고장을 豊饒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郡民은 自由를 尊重하고 責任과 義務를 다하여 民主文化를 꽃 피운다.
2. 우리 郡民은 良心과 信義를 지키고 協同奉仕하며 公共秩序를 生活化 한다.
3. 우리 郡民은 勤勉 誠實하며 進取的인 意志로 잘 사는 내 고장을 開拓한다.
4. 우리 郡民은 心身을 鍊磨하여 健全한 趣味와 情緒純化로 幸福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郡民은 傳統文化를 啓發하고 서로 和合하여 내 故郷 사랑에 앞장선다.



장수군의 심볼



장수군의 나무  
/ 은행나무



장수군의 새 / 까치



장수군의 꽃 / 산철쭉



# 장수의 노래

이 기 반 시  
이 준 복 곡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정 답 게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앳 뿌 려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 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롭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후렴)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이루세

# 의암주논개님의 유적



▲ 의암사



▲ 축석의기논개 색장향수명비(1846)



▲ 의암사 기념관



▲ 의암주논개 생가



▲ 생가지 사적불망비(1960)

## 의암주는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논개**는 선조(宣祖) 7년(1574) 9월 3일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 주달문(朱達文)과 밀양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때가 마침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여서 모두들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낳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술(戌)은 개(犬)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자에 “개”를 넣은 것이다. 논개(論介)는 천품(天稟)이 영리하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아버지가 훈장으로 계시는 마을 서당(書堂)에서 나이 10여세가 되기까지 한문을 배웠다.



**선조** (宣祖) 21년(1588) 8월 이 지방 사람 김풍헌(金風憲)이 논개(論介)의 인품에 탐을 내어 논개의 숙부인 주달무(朱達武)를 돈으로 매수하여 백치인 아들과 일방적으로 혼인을 시키려 했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고 한편 위 주달무는 도망하자 김풍헌은 논개 모녀를 상대로 장수현감에게 소장(訴狀)을 올렸으며 그 결과 박씨부인은 억울하게도 5년간 관가(官家)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에 논개가 어머니를 대신하겠다고 간청하자 현감 최경회(崔慶會)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모녀를 방면하였다.



**선조** (宣祖) 25년(1592) 왜적 3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는 다음해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 兵馬節度使)로 임명되어 진주(晋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논개도 최현감에게 간청하여 함께 따라 갔다. 당시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후퇴하던 왜군은 퇴로를 막고 있는 진주성을 공격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성내(城內)의 모든 관군과 의병 및 민간인이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였다. 아녀자들도 모두 나서서 치마폭으로 돌맹이를 나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병에게 퍼부으면서 최후까지 싸웠다.

**선조** (宣祖) 26년(1593)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고 평생을 의지하려던 최경회(崔慶會) 부군(夫君)마저 전사(戰死)하자 논개는 슬픔으로 날을 새웠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한 왜병들이 7월 7석날을 기해 축석루(矗石樓)에서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논개는 잔치마당에 나갔다. 한참 흥이 돋구어질 무렵 그는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위암(危岩)으로 유인하여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절벽아래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졌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킨 거울이 된 것이다.

## 탄신 425주 의암주논개 제전 행사안내

(제32회 군민의 날)

### ■ 문화행사

행 사 명	일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의 암 백 일 장	10. 7	10:00~14:00	논개생가지	
잡지발달사 기획전	10. 7~10.11	10:00~17:00	농협군지부 2층 회의실	
벼루·도자기·옹기만남전	10. 7~10.11	10:00~17:00	"	
서 예 전	10. 8~10.11	10:00~17:00	군 민 회 관	
의암시화전, 사진전	10. 11	10:00~17:00	의암사 기념관 잔디광장	

### ■ 체육행사

행 사 명	일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군 민 체 육 대 회	10. 10	09:00~17:00	장수 공설운동장	
동력패러글라이딩대회	10. 10	10:00~18:00	의료원 뒤편	
전 북 궁 도 대 회	10. 11	10:00~17:00	벽 계 정	

### ■ 전야행사

행 사 명	일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청소년댄싱경연대회	10. 10	16:00~18:00	특 설 무 대	
길놀이 시가행진	10. 10	18:00~19:20	공설운동장~의암공원	
불꽃놀이·레이저쇼	10. 10	19:20~19:26	남산공원, 의암공원	
군 민 위 안 공 연	10. 10	19:30~22:00	특 설 무 대	
풍 물 야 시 장	10.10~10.11	2일간	의암공원 주위	

### ■ 본행사

행 사 명	일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제 레 봉 행	10. 11	09:00~09:40	의암사 영정각	
제32회군민의날기념식	10. 11	10:00~11:00	특 설 무 대	
경북도립국악원공연·충절무 공연	10. 11	11:00~14:00	"	
경 노 잔 치	10. 11	12:00~13:30	의암공원 광장	
논 개 선 발	10. 11	14:00~17:00	특 설 무 대	
한 시 백 일 장	10. 11	10:00~14:00	장수향교 충효당	
카 퍼 레 이 드	10. 11	13:30~14:00	군청 ~ 의암사	
		17:00~17:30	의암사 ~ 군청	
군 민 노 래 자 랑	10. 11	19:00~22:00	특 설 무 대	

### ■ 기획행사

행 사 명	일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음악극 『그리운 논개』공연	10. 12~10. 13	2일간	전 북 대 삼성문화회관	*군민을 위한 특별공연 10. 12(화) 15:00~17:00



## 식 사 (式辭)

일년 365일 그 어느날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있으리오마는 장수군민을 비롯 의암 주논개의 충절을 숭양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음9월 3일)처럼 소중한 날도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二德, 三節, 五義의 고장에서 성장하신 의암 주논개님이 탄신하신지 425주가 되는 날이며 님의 우국단충을 기리고자 군민의 날로 지정한지 제32회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는 님이 왜장 계야무라 로구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하신지 406주가 되는 해(음7월 7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기리고자 군민이 하나되어 마련한 제전 행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과 먼길을 마다 않으시고 군민과 더불어 동참 해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의 귀감이 되시어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행사는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먼길을 오신 경북 도립 국악원의 제례음악 반주에 맞추어 엄숙하게 거행되는 제례봉행을 비롯하여 전후 1주간, 민속경기등 체육대회와 논개선발등 20여 문화행사를 『두둥둥』 큰 북소리 울리며 군민과 출향인이 한데 어우러져 큰 잔치 한마당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때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화합하여 청정하고, 선택받은 내고장 논개골에 밝은 내일이 있으리라고 목청 높여 합창 합시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암 주논개제전과 군민의 날 행사에 동참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KBS남원방송국, 전북일보사, 제전위원,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민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의암주논개제전 위원장 김진영

## 기 념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을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농심이 무르익는 요즘

의암 주논개님 탄신 제425주년과 제32회 군민의 날을 맞아 구국의 일념으로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친 논개님의 얼을 기리고 군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농사를 잘 마무리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오신 공로로 오늘 군민의장을 수상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제1회 주논개님추모 전국무용대회를 개최하여 주논개님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잡지발달사 기획전을 비롯 내일부터는 전주에서 「그리운 논개」 음악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지난 96년부터 이곳 논개사당에 총 44억원을 투자하여 불과 8,500평이던 경내를 65,000평으로 규모있게 단장하여 이제는 군민의 휴식장소는 물론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생가지 또한 2만평 규모로 넓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개역사의 재조명을 위해 전국적인 인사가 참여하는 법인체를 구성하고 이곳 논개사당에 문화예술회관과 야외공연장 그리고 보트장을 건립하여 진정한 문화요람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전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한 군민 소득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용림댐을 건립하여 장안산 주변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고 아울러 사당과 생가지를 잇는 10.7km의 도로 개설과 지지계곡을 경유하는 관광순환도로등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장수사과의 면적을 확대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은다면 다가오는 새천년 장수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손들이 장수가 고향인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오늘의 축제가 전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는 한마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장수군수 김 상 두

## 축 사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수를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의 축복이 가득한 가을에 의암 주논개님 탄신 425주년 기념  
과 제32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3만여 군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암 주논개님의 절의를 기리고자 전국 각 지역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장수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영해 마지 않  
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신 선현들의 발자취를  
보면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온몸으로 구국의 길을 걸어 주셨고, 평시에는 청빈한 생활  
로 우리 민족의 큰 귀감이 되어 오셨으며, 각 마을에는 효부와 열녀가 많이 배출된  
충·효의 고장이요 2덕 3절 5의로 빛나는 자랑스런 장수군입니다.

특히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19  
세의 꽃다운 젊음을 바치시므로써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열이 되었으며, 만인의 귀감  
이요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기고 길이길이 계승하고자 그분이 탄  
생하신 오늘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뜻깊은 행사를 갖고 있는 만큼 더욱더 발전시켜  
군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나아가 전국민의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체가 되는 행사로 더욱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논개님의 고매하신 살신성인의 정신과 우리나라 여인의 표상을 되살려서  
새롭고 활기찬 장수군을 만드는데 모든 군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  
니다.

지방화·정보화·신지식이 요구되는 새천년에 군민 누구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과 슬기를 모으는 화합의 제전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  
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제전위원회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여러분들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1999년 10월 11일

장수군의회회장 김 홍 기



## 축 사



오늘 충의의 고장 이곳 장수에서 주 논개 탄신 425주년을 기리고 또한 서른 두번째 장수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한뜻으로 논개제 행사를 갖고 군민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이 고장이 낳은 논개의 애국충정을 다시 한번 오늘에 되살리고, 보다 잘 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은 고랭지 채소와 사과 재배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개발에 힘쓰는 한편 군민 모두가 21세기를 향한 꿈을 안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굳건한 화합과 정진은 머지않아 장수군을 어느 지역 못지않은 훌륭한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논개의 고장답게 지난날의 충의를 긍지삼아 군민이 하나되어 더욱더 소득원 개발에 앞장서고 화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신명나는 축제가 내일을 향해 힘을 축적하는 값진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전라북도지사 유 중 근

## 축 사

'하늘이 푸르다 못해 눈이 부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맑은 가을날입니다. 발강계 익은 사과와 향내가 온고을을 진동시키고, 추수가 막 시작되는 들녘은 농부님들의 땀결음으로 가득합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백두대간의 끝자락 가도까지 협곡으로 이어지며 울창한 수림을 끼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장수!

南으로는 섬진강의 줄기가, 西로는 금강을 타고 흐르며 오랜 세월의 역사를 보듬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충절의 표상인 논개님의 탄신 425주기를 기리는 제전과 '군민의 날'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린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직도 역사속에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을 원망하고 계실 것만 같은 논개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 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장의 많은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역사속에 논개님의 충절 정신은 점차 결실을 맺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장수 군민의날이 32돌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종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동안 푸짐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던 분들도 많이들 방문을 하신다니 참으로 오랜만에 장수가 살아 숨쉬는 듯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유년시절의 동무들과 즐겁게 과거로의 회상여행도 즐겨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어 온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축제의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논개제전 및 군민의 날 축제를 축하드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논개제전위원회, 장수군청, 미래농촌연구회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정 세 균



# 의암주논개제전행사 발자취



의암 주논개 선발대회 ▲

▼ 전국 초·중·고 학생무용경연대회



▲ 농악시연



의암 주논개 제사 ▲



▲ 축등행렬



체육행사 ▲

▼ 논개 충절무 창작발표회



## 익암주논개충절무창작무용제 즐거리

### 1. 논개의 어린시절

논개는 어린시절부터  
유난히 학구적이고  
서당에서 글 읽기를  
좋아하였음

### 2. 논개의 처녀시절

동네의 아이들과 우정을  
두텁게하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효성이  
지극한 처녀로 성장함

### 3. 현감과과의 애틡한 사랑

진주성 싸움에 출전하는  
현감과의 애틡한 이별

### 4. '어우동' 으로 변신

남편이 순국하자  
울분을 참지못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게야무라 로꾸스께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우동' 으로 변신

### 5. 촉석루의 연회

진주남강 촉석루  
연회석에 참석하여  
게야무라 로꾸스께를  
유인 거사 단행

### 6. 씻김굿

500년간의  
논개님의 넋을 달래는  
진혼제



## 영호남교류 동서화합의 메아리



### ■ 지휘 / 곽 태 천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이수자
-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 현 경북도립국악단 지휘자

### ■ 객원출연

#### 민요 / 정 은 하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
- 한국민요연구원장



#### 대금 / 김 경 애

- 전국기악경연대회 장원
- 전국국악대제전 대통령상 수상
- 김경애 국악기교습소 원장

무용 / 김 지 연  
권 지 연  
김 연 주





## 곡목해설 영호남교류 동서화합의 메아리

프 로 그 램	
동동	5"
춘앵전	7"
민요	7"
부채춤	10"
대금산조협주곡	15"
창과 관현악	12"
신모듬 셋째거리	18"

■총연주시간 : 1시간 20분

1. 관악합주/동동(動動) .....집박/주인석

오늘날 연주되는 동동은 세가락 정음이라고도 하며 아악곡의 백미인 수제천의 변주곡이다. 고려때 “동동사(動動詞)”에 가사를 얹어 불렀다는 설도 있으며 궁중무인 아박무, 무고무의 반주음악으로도 사용 되었다.
2. 궁중무용/춘앵전(春鶯傳) .....무용/김희경

춘앵전은 조선왕조 순조(1801~1834)때 창작된 궁중정재(宮中正才)의 하나로서 어느 봄날 버드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피꼬리 소리를 듣고 느낀 바를 무용화한 것이라 전한다.  
이 춤은 독무(獨舞)로서 노란색의 앵삼(鶯衫)을 입고 한없이 느린 사위와 우아(優雅)한 동작으로 추는데 그 생명이 있다.
3. 민요/태평가·박연폭포·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 .....노래/정은하·김수희

민요(民謠)란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전파(傳播)정도와 음악적 세련도에 따라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따라서 남도민요, 경기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로 나눈다.
4. 민속무용/부채춤 .....무용/김희경 외 7명

부채춤은 부채를 무구(巫具)로 삼아 춤을 추는 무용을 말하며, 무당춤(巫舞)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복이나 당의(唐衣)를 입고 양손에는 꽃그림이나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를 들고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구사하며 추는 춤이다.
5. 관현악/이생강流 대금산조 협주곡 .....지휘/곽태천 대금/김경애

<편곡 이준호>  
산조란 주로 남도지방에서 쓰여진 무속음악과 관련이 있는 시나위와 관소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기악 독주곡이다. 대금은 부드럽고 맑고 힘차며 시원한 음색 때문에 가장 유명한 독주악기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특히 산조 대금은 강렬하게 떠는소리와 소리를 흘러내리고 밀어올리는 기법,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6. 창과 관현악/성주풀이·흥타령·개구리타령 .....지휘/곽태천 창/조경자

<편곡/김희조>  
남도민요(南道民謠)중 3곡을 관현악에 맞춰 노래부르도록 김희조선생이 편곡한 것이다. 성주풀이는 성조신(成造神)을 기리는 노래이며 흥타령과 개구리타령은 서민들의 애환을 표현한 노래이다.
7. 관현악/사물놀이를 위한 국악합주곡「신모듬」 .....지휘/곽태천  
팽과리/유영선 장구/정환석  
북/박정덕 징/김준휘

<작곡/박범훈> 셋째거리-환희  
신모듬은 경기지방의 무속음악이 바탕이 된 작품이다. 사물놀이의 팽과리·장구·북·징으로 구성된 사물의 특이한 리듬을 관현악곡으로 접목시킨 「신모듬」은 풍장, 기원, 환희라는 세 개의 거리(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수의 표상(二德三節五義)

### 이덕(二德)



▲ 방촌 황희 선생 동상(장수 방촌공원내)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 금덕리)

#### ◇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 ~ 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아버지 군서가 장수현감으로 있을 당시 장수현 수내면 선창리 내아에서 출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 (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예조·병조·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명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 정신재 백장(靜愼齋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 ~ 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字)는 明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源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희등을 배향

### 삼절(三節)



▲ 의암사(장수 두산리)

#### ◇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 (4甲戌)
- 1591. 장수현감 최경희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희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巖"이라 새김(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환)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혹식의기 논개생장향수 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물 명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현위치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6.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55.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현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97 장수의 표상



▲ 타루공원(천천 장판리)

◇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중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관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 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밭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썩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 물어 암벽에 썩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현승이 순의리 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통인: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하려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기계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자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 장수향교(장수 장수리)

오의(五義)

◇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변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해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변암 죽림)



▲ 백용성 조사 유허비(변암 죽림리)

◇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변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滋,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변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의사 전해산 추모비(변암 노단리) ▶

◇ 정인승 박사(鄭寅承 博士)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농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 정인승 선생 유허비(계북 양악리)

◇ 문태서 장군(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문태서 전승 기공비(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의병대장 문태서, 박춘실 전적비(계북 양악리) ▲

## 내고장 자랑(관광명소)



### ▲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갈대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구슬 구르는 소리 같다.



### ▲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서 각광받고있다.



### ▲ 방화동가족휴가촌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 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 눈썰매장, 물 놀이장, 잔디광장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 ▲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 내고장 자랑(명산품)



### ▲ 사과

장수는 산간 고랭지대로 주야 일교차가 커 사과재배 적지로서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독특한 사과를 생산, 전국제일의 사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 오미자



### ▲ 석기



### ▲ 토종돼지

### ▼ 한우



경

탄신 425주 익암 주논개 제전 및 제32회 군민의날

축

내집짓는 마음으로  
품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株式會社 東南레미콘

레미콘/아스콘/쇄석골재/펌프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동남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

탄신 425주 익암 주논개 제전 및 제32회 군민익날

축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마음으로 —

**한국통신 장수전화국**

TEL : 351-0200 / 국번없이 100

한국통신인터넷  
**KORNET**

한국통신 **isdn II**

## 팔공 청년회

### 회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회장: 이성춘  
부회장: 민호성  
사무장: 박귀현  
환경부장: 김석곤  
문화체육부장: 김종석

직전회장: 이기준  
부회장: 황종호  
총무교육부장: 이경탁  
지역사회부장: 강석봉  
제전기획팀장: 장영수

### 깨끗한 선거와 바른 정치는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정치인(국회의원, 군수, 도·군의원 등)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의·부의금품을 기대하지 맙시다.

- 2000. 4. 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는 우리가 꼭 하여야 합니다.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은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합시다.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 351-2176, 1588-3939)



경

탄신 425주 익암 주논개 제전 및 제32회 군민의날

축

농민보호는

우리 **담배애용**으로!



장 수 영 업 소

소 장 최 학 도



한 손은 교보생명이 잡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교보생명이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평생에 걸친 투자이기에 고객의 이익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돌려 드리는 일, 교보생명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문의 02)2630-1111, 인터넷 <http://www.kyobo.co.kr>

천혜의 청정지역 장수!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이  
 보존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장수농협이 만든 **흑 보**



장계농협이 만든 **한 과**



마음은 농촌 - 저축은 농협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지부장	육영수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진기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택렬

## Eulam Ju Nongae Festival



### 는 개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남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운 그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남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남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